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슴을 지닌 여자

<편집실>

불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중독증 치료로 다른 수술환자보다 2일 늦게 퇴원하는 날 성운이는 퇴원이 안 된다는 것이었다. 성운이의 요도에 균이 감염되었는데 자체적인 치유가 되고 있으나 다시 한번 검사를 해서 감염된 균의 소멸을 확인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엄마와 나, 남편은 청천 벽력같은 의사의 말에 그저 주저앉고만 싶었다.

그 날 친정 집으로 돌아와 체녀 시절 쓰던 내방에 누우니 눈물이 그치질 않았다. 방안에는 아이의 이부자리가 가지런히 펴져 있었고 작은 바구니에는 아이의 배냇저고리와 기저귀, 내 손가락 두 마디만 들어가던 양말... 산후조리와 신생아를 키우기 위해 이것저것 가져다 놓은 아이의 살립살이가 너무나 가슴을 미어지게 했다.

그런 나에게 남편은 이런 말로 위로해 주었다. "종합검진 받는다고 생각해. 그냥 정상으로 낳았으면 모르고 지나쳐 큰 병을 만들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모두 짚어 보았을 테니 더욱 안심할 수 있잖아." 남편의 위로에 조금은 마음이 풀렸지만 아이에게 너무나 미안해서 흐르는 눈물은 그칠 줄을 몰랐다.

그런 미안한 마음 때문에 유축기 하나를 구입하여 병원에 있을 때 보다 더 열심히 성운이에게 젖을 짜 매일 신생아 입원실에 넣어주었다.

성운이는 내가 퇴원한지 3일만에 퇴원했다. 다행히 요도에서 균은 더 이상 발견되지 않았고 '잘

먹고 잘 잡니다'라는 담당간호사의 친절한 인사말까지 듣고서 성운이는 내 품에 안겼다.

낳은 지 10일만에 안아본 내 아기는 새털처럼 가벼웠다. 퇴원시 몸무게 2.4kg.

집으로 돌아오는 차안에서 또 다른 걱정으로 나는 마음이 무거웠다. 조카 다섯 명 모두 태어나자마자 젖병부터 물려서 그 아이들은 엄마 젖은 빨려고 들지를 않았다. 언니들 3명 모두 젖이 많았지만 할 수 없이 분유를 먹일 수밖에 없었다.

그 애들은 입원기간도 2일 밖에 되지 않아도 그랬는데 10일간 입원한 성운이는 보나마나 뻘한 일이 아닌가.

이러한 엄마의 걱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이는 새록새록 잠만 잔다. 집에 도착하여 성운이를 방에 눕히니 곧바로 잠을 깬 아이는 자기웃자락을 쫄쫄 빨기 시작한다.

"배가 고프는가 보다 젖 한번 물려봐라"

엄마의 말씀에 젖 물리기 전에는 손부터 씻어야 한다는 간호사의 교육내용도 잊어버리고 열린 왼쪽가슴을 아이에게 내밀어 갈색의 유두를 살짝 물려본다.

성운이는 목마른 사람이 달고 시원한 샘물을 마시듯 힘차게 너무나도 힘차게 젖을 빨기 시작했다.

그때의 그 기쁨과 행복감이란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커다란 기쁨이었다. 아이는 젖을 다 먹고 이내 잠이 들었다.

한 쪽입가에는 뽀얀 젖 한 방울까지 흘러가면서... 그런 아이를 보고 있으니 '내가 이제는 정말



엄마가 되었구나' 하는 실감을 할 수 있었다.

그런 성윤이는 오늘로써 7개월 열흘이 되었다. 그 동안 성윤이는 병원을 딱 두번 갔다. 한번은 퇴원하고 요로 감염이 재발되지 않았는지 검사차 한번, 한번은 네살뱀이 사촌언니가 선물로 주고 간 코감기 때문에 콧물 제거하러 한번.

성윤이는 우리 다섯 조카들 모두 가지고 있는 아토피성 피부염도 없고 말도 빨리 하기 시작했다.

믿기지 않았지만 4개월 조금 지나서 '아바바바' 거리가 시작하더니 5개월 무렵에는 엄마라는 말을 이해하고 말하기 시작했고 요사이는 아빠를 보면 '아빠' 하고 웃는다.

분유선전에서 아이의 두뇌와 성장을 위해서는 24개월 설계니 하면서 순진한 엄마들을 현혹하지만, 결코 아이들의 진정한 신체적, 정서적 성장을 위해서는 엄마 젖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몸과 마음이 고르게 건강한 성윤에게 지난 5월에 기쁜 일이 있었다. 대한간호협회에서 주최한 제6회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에서 성윤이는 지역 예선에서는 으뜸건강아상을 수상한데 이어 서울본선에서 입상하는 쾌거를 이룬 일이다.

성윤이의 수상을 아는 사람들마다 "애기를 잘 키우셨나봐요." 하고 나를 칭찬해주지만 내가 한일이라고는 목욕시키고 젖 먹인 일 뿐이니 칭찬이 과분해도 너무나 과분했다.

그러나 그때의 기쁨은 자식을 키우는 보람을 알게 해준 소중한 경험임은 분명했다.

그런 성윤이를 키우면서 내가 실수를 한적이 있는데 그것은 이유식에 관한 문제였다. 대개의 첫아이를 낳은 엄마들은 한 권 이상의 육아서적을 가지고 있다. 그 책의 내용 중에는 대개 6개월 가량이면 모유의 영양가가 현저히 떨어져 영양가가 충분한 이유식으로 보충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이를 위해 나는 분말형의 인스턴트 이유식을 하루 한차례, 내가 만든 이유식을 하루 한차례 주는 식으로 조절했는데 모유수유아 선발대회에서 교육

받은 내용은 엄마 젖에는 충분한 영양성분이 있으므로 이유식은 그야말로 보충식으로 엄마가 정성스럽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심사위원으로 오신 이화여대 소아과 교수이신 이 근 교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12개월부터는 다시 엄마의 젖에서는 면역성분이 나온다고 필히 24개월까지는 꼭 먹이라고 했다.

나는 12개월까지만 먹이려 한 계획을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바로 24개월로 수정하였다.

시아머니께서 늘 말씀하시기를 아이는 작게 낳아서 크게 키우라고 하셨는데 작게는 낳았으니 이제 크게 키우는 일만이 남았다.

지금 생각해보니 젖이 잘나오고 아이가 잘먹는 데는 유전적인 요인과 정성스러운 마사지보다는 엄마와 아이와의 끊임없는 약속이 더욱 중요한 요인인 것 같다.

나는 임신중이 아닌 결혼 전에도 내가 낳을 아기를 생각할 때마다 늘 되뇌던 말이 있었다.

"엄마는 엄마젖으로 너를 키울 테야. 너를 안고서 너를 바라보면서 엄마가 만든 엄마 젖으로 너를 건강하게 키울게." 그 말과 그 마음이 아이에게도 간절히 닿아 약속처럼 지켜졌던 것 같다.

올 8월 중순에 17년지기 친구인 혜경도 첫아이를 낳는다. 그 애와 늘 통화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나의 말.

"혜경아, 가슴 마사지 잘하고 애기한테 건강하게 나와서 맛있는 엄마젖 먹자하고 얘기해줘라. 엄마 젖이 얼마나 위생적이고 영양이 풍부하고 경제적인 줄 너도 먹여봐야 안다. 젖 꼭 먹여라."

연애 시절 나의 큰 가슴이 병인줄 알았던 남편.

그런 남편은 요즘 아이를 안고 젖먹이는 나를 바라보며 가끔 이런 말을 해준다. "당신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가슴을 가진 여자야." 늘 큰 가슴 때문에 고민이었던 내게 남편의 그 한 마디는 고민을 자랑으로 만들어준 고미운 격려이고 아이를 건강하게 키운 데 대한 감사였다. (끝)